

다민족 · 다음세대 인종과 문화의 벽 넘어 기도

2026 다민족연합기도대회
미국의 영적·사회적 회복
민족과 공동체 위해 기도
복음 안에서 연합의 비전 확인

2026 다민족연합기도대회가 13일 오후 4시에 3시간 30분여 동안 플러턴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다양한 민족과 교회 공동체, 다음세대가 함께 모여 미국의 부흥과 열방의 복음화, 민족 간 화해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회는 찬양과 역사 영상, 쇼파르 연주에 이어 개회기도, 환영 및 대회 취지 소개, 목사와 단체장들의 단상 회개기도 등으로 진행됐다. 이후 각 민족을 대표하는 기도자들이 나서 민족별 기도제목을 나누고, 참석자들과 함께 미국과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를 이어갔다. 1부 환영과 대회취지 시간에는 강태광 목사(월드쉐어 USA)가, 2부 연합 기도회 시간에는 강순영 목사(자마 원로 대표)가 사회를 봤다.

특히 이번 기도회에는 여러 민족 공동체뿐 아니라 다음세대들도 참여해, 세대와 인종을 넘어 미국의



2026 다민족연합기도대회. © 기독일보

영적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한기홍 목사(대표 대회장)는 "우리가 통렬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부흥을 주실 줄 믿는다"고 했으며, 송정명 목사(대회 고문)는 "지금 지구촌은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이다"고 했다.

다민족을 위한 기도제목을 나눈 심상은 목사(공동준비위원장)는 각 민족이 겪는 아픔을 바라보며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 목사는 "이 아픔을 보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전해주는 유일한 길이 바로 기도밖에 없는 줄 알았다. 인종과 문화의 벽을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화해와 평화를 누리도록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온 열방과 민족을 향해 함께 기도할 때,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들이 온전히 영적 안식을 찾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심 목사는 다민족 이웃을 향한

교회의 실천적 사랑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 다민족 이웃들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며 "우리의 작은 기도가 모일 때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료되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줄 믿는다"고 했다.

북한을 위한 기도제목을 나눈 김학송 목사는 북한의 영적·육적 회복과 북한 동족을 위한 교회의 회개를 촉구했다.

김 목사는 "북한에는 아직도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용사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북한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 북한 땅에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자"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북한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을 통하여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땅에 복음과 회복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토마스 맹 기자 → 3면에서 계속

나성영락교회 “여기에서 땅끝까지” 미션 엑스포 개최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는 "From Here to the End(여기에서 땅끝까지!)"를 주제로 '2026 YNC 미션 엑스포'를 2주간 진행하고 있다. 미션 엑스포는 지난 6일(주일) 오전 9시 2부 예배 시간 금병연 목사의 사회로 개막했다.

박은성 목사는 개회를 선언하며, "이 선교대회를 통해 우리 안에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감격, 모든 생명을 향한 열망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선교지의 새로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

가 쓰여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에는 캄보디아, 동티모르, 에티오피아, 아이티, 이집트, 온두라스, 케냐, 라오스, 멕시코, 미얀마, 니카라과,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한국, 스리랑카, 우간다 등 17개국 선교사가 참석했다.

개회식에서 박은성 목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이끄기를 원하시느니라'(디모데전서 2장 4절)를 본문으로,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사명'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다. 그는 2010년 8월 5일 칠레 광산이 무너졌을 때, 나머지 한 명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구조 작전을 언급하며, "생명을 구하는 일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를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연결하며, 영혼 구원의 사명에 있어서, 영혼은 상대적 가치가 아닌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고 말했다.

→ 3면에서 계속 토마스 맹 기자

→ 1면 기사 <미션 엑스포>에 이



나성영락교회 YNC 미션 엑스포가 진행되고 있다. © 기독일보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
내 집을 구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믿고 선택하시면, 최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213-700-3239
yunyoungkwag@gmail.com
3030 W 8th St. #200, Los Angeles CA 90005

정부보조
상업 환경

NEWST Realty & Inv. DRE# 01935957 **곽윤영**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www.marhlaw.com

■ 상법/부동산법 ■뱅크런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 213.820.3704

교회및비영리단체도 **최대 40%**를
태양광설치비의 현금으로 돌려받으세요!

연방정부의 DirectPay 프로그램으로 교회도 현금환급이 가능합니다

B.T.S. SOLAR DESIGN **213-500-8000** 2027년 말 비영리단체 지원 인센티브가 종료!
지금 지원해야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th Anniversary

**베데스타대학교 창립 50주년 기념
및 총장 고경환 · 부총장 Sam Shin 취임식**

하나님의 은혜로 50년,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조용기 목사님의 비전과 기도로 시작된 베데스타대학교는 지난 50년간
하나님 중심(Centered on God)의 교육을 통해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길 신임 총장 고경환 박사와
신임 부총장 Sam Shin 박사의 취임을 함께 축하하며, 귀하를 이 뜻깊은 자리에 정중히 초대합니다.

일시
2026년 9월 19일(토) 오후 5:00

장소
베데스타대학교 1층 Chapel Room
730 N Euclid St Anaheim CA 92801
대표전화 (714) 683-1210

BETHESDA UNIVERSITY 50 of God's Faithfulness
CENTERED ON GOD / EMPOWERING FUTURE LEADERS

YNC 선교 엑스포 “예수님이 다시 잔치를 여신다”

미셔널 처치로서의 사명 선포
9월 6일-19일까지 2주간 진행
17개국 선교사 39명, 자녀 12명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가 'From Here to the End(여기에서 땅끝까지!)'를 주제로 9월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2026 YNC 미션 엑스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미션 엑스포는 박은성 목사가 부임 10년차를 맞아 처음으로 여는 선교대회다.

지난 10년 동안 예배·친교·봉사·교육·선교 다섯 가지 사역의 방향을 세우는 데 주력해 왔다면, 올해는 나성영락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재확립하기 위해 이번 엑스포를 준비했다.

지난 10일(목) 오후 7시 열린 저녁 집회 강사로 나선 김한요 목사는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첫 번째 표적을 중심으로 설교했다.

그는 은퇴를 앞두고 폐암 선고를 받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선교의 열정이 식어버린 채 형식만 남아 있는 의식화, 종교화된 신앙을 '돌항아리'에 비유했다.

김 목사는 성경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해 요한계시록의 어린양 혼인잔치로 끝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리는 첫 번째 표적 역시 결혼식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나성영락교회 선교 엑스포 9월 10일 저녁집회. © 기독교일보

고 말했다.

그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인생과 사역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에 비유했다.

김 목사는 “잔치가 한창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가 중간에 끝날 수밖에 없는 위기”라며 “우리의 삶과 사역에도 어느 순간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이제 내 사역의 잔치는 끝났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이 찾아온다”고 말했다.

그는 오랜 목회 사역을 마치고 은퇴를 앞두고 폐암 진단을 받았으며 “30살부터 캠퍼스 사역에 뛰어들어 지금까지 달려왔고 이제 잘 은퇴하

나 싶었는데 갑자기 암이라는 말을 들으니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내 인생의 잔치가 끝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오랜 기간 선교지에서 헌신해 온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전쟁이 발발해 모든 선교사들이 철수할 때에도 “이 나라를 위해 죽겠다”며 현지에 남았던 선교사가 어느 날 자신과 오랜 세월 함께했던 현지인의 배신을 경험하면서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던 사연을 나누었다.

김 목사는 “목숨을 걸고 한 영혼을 위해 달려왔지만 어느 순간 배

신과 실패를 경험하면 사역의 잔치가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가나 혼인잔치에 여섯 개의 돌항아리가 있었지만, 텅 비어 있었다”며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외형은 남아 있지만 그 안에 기쁨과 사명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사역이 루틴이 되고, 현지인에게 배신을 경험하면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질 수 있다”며 “그때 우리는 텅 빈 돌항아리와 같은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진짜 신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특히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에 주목하며 그 ‘때’가 십자가를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잔치가 끝난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 다시 잔치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며 “노래가 끝나고 풍악이 멈춘 것 같은 삶에 다시 음악이 울려 퍼지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신앙이란 장차 있을 천국의 잔치를 오늘의 현실로 끌어당기는 것이라고 했다.

김 목사는 오랜 신앙생활과 사역 가운데 잃어버리기 쉬운 ‘구원의 즐거움’도 강조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과 기쁨은 사라질 수 있다”며 “내가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구원의 즐거움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라며 “선교사라는 타이틀, 목사나 장로라는 직분 때문에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살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디 한 기자

“화려한 건물보다 예수를 택하다” 베이직 교회 이전 감사예배

LA 베이직 교회(이선기 목사)가 새 성전으로 이전하고, 지난 13일(주일) 오후 4시에 이전 감사예배를 드렸다. 새 성전은 3400 W Olympic Blvd. LA에 위치하고 있다.

이날 예배는 김재왕 목사의 인도로 경배와 찬양을 드린 후, 박성수 장로(임원회장)가 대표기도하고, 박성수 장로, 정기수 권사의 특별 연주, 김진동 장로(평신도 대표) 성경봉독, 베이직 성가대의 특별 찬양, 류계환 총감리사의 설교, 이선기 목사 광고, 신병욱 목사(서부지방 감리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류계환 총감리사는 설교를 통해, LA 베이직 교회가 예배 처소 이전과 교단 탈퇴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건물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며, “참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교회와 서부 지방 교회를 위해 기도하던 중 사도행전 7장



48절, 49절 말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를 바탕으로, 무엇이 진정한 성전인가라는 메시지를 나누었다.

“고린도에는 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전이라고 할 때 이방 우상을 위

한 신전들을 떠올렸을 것이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건축물, 이방 신의 우상이 세워진 화려한 석조 기둥으로 지어진 물리적 공간을 성전이라고 생각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신전들이 가득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관계, 그들의 신앙의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이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관계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이어 그는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바탕으로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거룩성 회복을 촉구했다.

류 총감리사는 “오늘날 교단 지도자와 목회자를 향한 불신이 심각해지면서 누군가를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시대가 되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거룩은 타인을 심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해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곧 성령이 거하시는 참된 성전”이라며, “세상의 화려한 건물을 소유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LA 베이직 교회가 진리의 말씀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바란다”고 축원하며 말씀을 맺었다.

LA 베이직 교회는 LA연합감리교회와 월서연합감리교회 소속이었던 한인 교인들이 연합감리교단(UMC)의 동성결혼 정책에 반대해 소속 교회를 탈퇴하고, 개척한 교회이다. 이후 교회는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해 설립된 보수성향 교단 ‘글로벌 연합교회’(GMC)에 가입했다.

주디 한 기자

제85대 남가주한인원로목사회

원로목사·사모

초청 위로여행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함께 심과 은혜의 바다로

오랜 세월 기도와 헌신으로 지역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오신 원로목사님과 사모님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여행 일정

2026. 10. 5(월)~10. 9(금)

4박 5일

여행 장소

멕시코 크루즈

대 상 남가주 지역 한인 원로목사님 및 사모님

문의·신청 엄규서 목사 (213-820-9414)

후원 및 일정 문의 최영봉 목사 (213-271-5034)

회장 이상기 목사 | 총무 최영봉 목사

제23회 오네시모선교회 후원의 밤

제23회 오네시모선교회 후원의 밤 행사가 지난 12일(토) 오후 6시, 부에나파크 시니어센터 헤리티지 홀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캘리 리 후원회장의 환영 인사로 시작됐다. 이어 데릭 임 오네시모선교회 대표목사가 선교회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함께 기도한 후 준비된 애찬을 나누며 교제했다.

메조소프라노 정희숙 권사의 찬양 ‘광야를 지나며’로 무대의 막이 올랐다. 이어 여러 재소자의 진솔한 간증이 소개돼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폴 최 집사와 찬양사역자 유니스·앤드류 윤의 연주와 간증도 이어졌다. 바리톤 장상근 전도사는 진솔한 간증과 함께 ‘You Raise Me Up’을 열창해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오네시모선교회 후원회를 섬겨 온 홍풍자·전옥진 권사는 헌금 시간에 크로마하프



제23회 오네시모선교회 후원의 밤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기독교일보

를 연주했다. 이후 장상근 전도사의 인도로 참석자 모두가 ‘파송의 노래’를 함께 불렀으며, 오네시모선교회 창립자인 김석기 목사의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행사장에는 재소자들이 직접 제작한 그림과 공예품이 전시됐다. 이와 함께 후원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서예가와 사진작가들의 작품도 전시·판매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을 모았다.

오네시모선교회는 재소자와 그 가족을 섬기는 사역을 알리고 후원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매년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모금된 후원금 전액은 재소자와 그 가족을 위한 선교 사역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선 기자
문의: www.onesimusministry.org/
전화: 714-739-9100

사우스베이 목사회 정기기도회

사우스베이목사회(회장 신용한 목사)는 9월 9일(수) 오전 11시 나성서남교회(담임 최권능 목사)에서 9월 정기기도회를 진행했다.

이날 예배에서 남가주교협 회장 김은목 목사의 대표 기도 후 최권능 목사가 고린도후서 4장 7-10절을 본문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최 목사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

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면했다.

설교 후 참석자들은 사우스베이 지역 교회들의 연합과 부흥을 위해, 지역 교회와 목회자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

이날 정기기도회는 참석자들이 함께 주기도문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후 서로의 사역을 격려하고 교제했다.

김민선 기자



라구나힐스 연합감리교회, 정치영 목사 파송예배

라구나힐스 한인 연합감리교회가 창립 29주년을 맞아 파송예배를 드리고 장학금 수여식을 거행했다

지난 13일 열린 기념예배에서는 지난 7월 1일 새롭게 부임한 정치영 목사의 파송예배가 함께 진행됐다.

라구나힐스 한인 연합감리교회에 파송된 정치영 목사는 이사가 43장 18~21절을 본문으로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정 목사는 “29년 전 ‘새로운 탄생’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불드시고 인도하셨다.”라고 설교했다.

이어서, “과거의 영광과 아픔에 머물지 않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한다”며, “29년 전 교회를 탄생시킨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소망을 전했다.

이날 예배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



라구나힐스 연합감리교회가 2026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장학생이 소감을 전하고 있다. ©라구나힐스 한인연합감리교회

한 장학금 수여식도 진행돼 15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교회는 그동안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장학사업을 지속해 왔다.

교회 측은 창립 29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어려움을 딛고 점차 회복해 가고 있으며, 장학사업과 선교를 비롯한 지역사회 섬김에도 다시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정 목사는 설교를 마무리하며 “29년 전 이 교회를 새롭게 탄생시킨

하나님, 이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새로운 탄생에서 시작하여, 이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로 다시 나아가자”고 권면했다.

라구나힐스 한인 연합감리교회는 내년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교회의 회복과 성장, 선교 및 장학 사역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셉 리 기자

CMF 선교원, 27주년 감사예배

CMF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이 9월 5일 창립 27주년을 맞아 CMF선교원 회관에서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됐으며, 김철민 장로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유진 선교사(예멘)가 대표기도를 드렸고, 원성구 선교사(CMF)가 말씀을 전했다.

원성구 선교사는 시편 139편 14절을 본문으로 “God’s Grace in My Life”라는 제목의 설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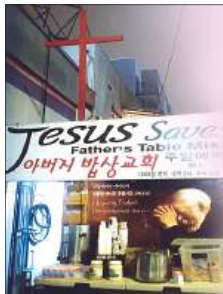
원 선교사는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선교의 길 역시 인간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이어져 왔음을 강조했다.

이어 이축복 선교사가 삶과 사역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며, 참석자들은 원성구 선교사의 인도로 CMF선교원의 사역과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했다. 예배는 원성구 선교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김민선 기자



CMF 선교원이 27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기독교일보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홀리스 사역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도내이전해 주세요.)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40년 보험 전문인 JAY PARK이 자신있게 소개하는

자동차, 사업체, 메디케어 보험

CA ins. Lic#OC84280

(213) 380-9801

2975 Wilshire Blvd., Suite 506
Los Angeles, CA 90010



교회 · 학교 · 커머셜 빌딩 · 비영리단체를 위한 특별한 기회!

교회 및 비영리단체도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40%를 현금으로 돌려받으세요!

연방정부의 DirectPay 프로그램으로 교회도 현금환급이 가능합니다



YNC 나성영락교회
YOUNG NAK CHURCH OF L.A.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https://youngnak.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대흥장로교회
Dae Heung Presbyterian Church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el. 310-719-2244
<http://www.dkpc.org>



코너스톤교회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el. 310-530-4040
<http://www.cornerstonetv.com>



B T S SOLAR DESIGN

213-500-8000

2027년 말 비영리단체 지원 인센티브가 종료!
지금 시작해야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및 교회를 위한 맞춤형 태양광 솔루션

✉ btssolardesign@gmail.com

🌐 www.btssolardesign.com



무한도전 멤버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러닝 페스티벌

무한한 도전 끝나지 않는 청춘

센터메디컬그룹은 당신의 에너지와 도전을 응원합니다.



달리고, 즐기고, 하루종일 즐기는 무한축제!

대한민국 대표 예능 **무한도전** 멤버들과 함께 달리는 특별한 러닝 페스티벌!
San Pedro의 아름다운 도시와 항구 풍경을 따라 5K 또는 10K 코스를 달리며
건강과 활력을 만끽하고, 완주 후에는 유명한 **K-pop**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는
특별 콘서트까지 즐길 수 있는 축제!

건강을 위한 한 걸음부터 특별한 추억까지, **센터메디컬그룹**과 함께 즐겨보세요!

일시 10.17.2026 (토)

장소 WEST HARBOR
1332 S Harbor Blvd
San Pedro, CA 90731

정보 센터메디컬그룹 회원
선착순 무료 예약!

- 5K 또는 10K 코스 선택
- 회원 본인 직접 예약 문의 및 참가 필수
- 등록 완료 후 티켓 양도·변경 불가
- 센터메디컬그룹 사은품 착용 후 완주 필수

문의 전화 **888-847-3098** 9AM - 5PM (M-F)

※ 무료 티켓은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게스트 및 출연진은 주최 측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합동] 제111회 총회 개회 “부르심의 뜻 기억하자”

총회장 정영교 목사 · 부총회장 송기섭 목사 선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예정 합동)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제111회 정기총회를 개회하고 18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전국에서 모인 1,600여 명의 총대들은 본격 회의에 앞서 개회예배를 드렸다. 총회 서기 김용대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는 부총회장 홍석한 장로의 기도, 회록서기 안창현 목사의 성경봉독 순으로 이어졌다.

‘하나님의 총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제110회 총회장 장봉생 목사는 “우리를 목사와 장로, 그리고 총대의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자”며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공교회의 현장임을 잊지 말고, 산하 교회와 성도들이 교단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총회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예배는 증경총회장 김중혁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회무에 진입하는 이번 총회에서는 교단 안팎의 관심을 끄는 각종 안건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총회 차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 발표를 비롯해 주일성수와 교회 화평을 위한 ‘주일 단체집회 및 시위

금지’ 시행세칙 제정, 총회 여성사역자 관련 위원회의 폐지 안건 등이 상정됐다.

당회 조성을 위한 세례교인 기준을 현행 25명에서 20명으로, 교회 신설을 위한 교인 인원을 15명에서 12명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는 행정 완화안도 심의된다. 농어촌 교회의 위기와 인구 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년 관련 안건도 대거 제출됐다. ‘70세 정년 폐지’를 비롯해 ‘목사·장로 동시 75세 연장’, ‘교인 수 50인 미만 교회 목사 정년 만 73세 연장’, ‘농어촌(읍·면 단위) 교회 항존직 및 임시직 시무 연한 5년 유예’ 등 안건들이 논의된다. 총회 첫날엔 신임 임원단 투표가 이뤄졌다. 목사 총대 811명 중 757명, 장로 총대 811명 중 686명이 참석해 성수됐다. 총회장은 직전 부총회장 정영교 목사(남경기노회 양문교회)가 박수로 추대됐다. 정 신임 총회장은 취임사에서 “1년 동안 공의를 바로 세우는 온라인 사법 시스템을 구축해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판단과 양심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총회가 진행되는 모습.

[통합]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외부 환경보다 ‘내부 분열’

진영 논리와 이념 갈등 들어와

예정 통합 제111회 총회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신 30:19-20, 엡 4:1-6)’라는 주제로 9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도림교회(담임 정명철 목사)에서 개막했다.

부총회장이자 총회장으로 추대될 권위영 목사(서울숲교회)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신 30:19-20, 엡 4:1-6)’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권위영 목사는 “우리는 지금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이자 영적 위기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다. 생명의 활기보다 죽음의 그늘이, 화해의 악수보다 분열의 장벽이 더 짙게 드리워져 있다”며 “피조세계 전체가 탄식하며 신을 하고 있다. 인구 절벽이라는 유례없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사회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는 곧바로 교회학교 붕괴와 학원 선교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 존경의 시선 대신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권 목사는 “그러나 정작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내부 분열’이다. 세상 속에서 갈등을 치유하고 화해의 소금이 돼야

할 교회가, 도리어 세상의 진영 논리와 이념의 갈등을 교회 안으로 고스란히 복제해 들여와 서로를 반목하고 시기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며 “사소한 의견 차이가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고, 그리스도의 찢어진 몸 된 교회가 우리 안에서 또다시 찢겨 나가는 아픔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11회 총회 주제는 단순한 표어나 구호가 아니다. 이 어두운 시대 앞에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이며, 교단이 역사적으로 지켜온 개혁주의 정체성이자,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에큐메니칼 신학의 핵심 가치”라며 “오늘 우리는 이 엄중한 영적 명령 앞에 서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두 가지 거룩한 신학적 기둥과 구체적 목회적 결단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또 “이번 총회가 며칠 모여 조직하고 회무를 처리하며 끝나는 행정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구호로만 외치다 흩어지는 말의 잔치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미래 주역인 자녀 세대가 교회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정리했다.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권위영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고신] 제76회 총회 개회예배 “위로 임하는 총회 되길”

예정 고신총회(총회장 최성은 목사)가 15일부터 18일까지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제76회 정기총회를 ‘위로’(고린도후서 1:3-4)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첫날 개회예배는 최성은 목사의 인도로 드려졌으며 장상환 장로(부총회장)가 대표기도를 드렸다. 이어 최 목사가 성경봉독을 했으며 고신권사합창단의 찬양이 이어졌다. 이어 김상석 목사(전임 총회장)가 ‘위로’(고린도후서 1:3-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

요하다. 인생은 강한 것 같지만 상한 갈대와 같고,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며,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 건강과 힘, 지혜가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위로 없이는 설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개인과 가정, 교회와 총회, 나라와 민족이 감당해야 할 환란과 고난이 많다. 갈등과 대립이 깊어지고 공동체가 분열될 때, 사람의 힘이나 능력만으로는 그 문제를 해

결할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정죄하고 비방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곁에 오셔서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다”고 했다.

이어 “사도 바울은 큰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 하

나님의 위로는 막연한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한 확실한 위로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우

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다. 우리가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고 했다.

다니엘 최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고승희, 김영길, 김재성, 김중언, 김한요, 류종길, 민종기, 박기호, 송정명, 신성욱, 이상명, 이종용, 임성진, 정우성, 진유철, 한기훈

자문위원

강태광, 고광선, 고창현, 구경모, 구봉주, 국윤권, 김중규, 류용렬, 박은성, 박일서, 오명찬, 우영화, 최현규, 한현중, 써니김

이 사 장 : 폴 킴

발 행 인 : 이민규

편집국장 : 맹창현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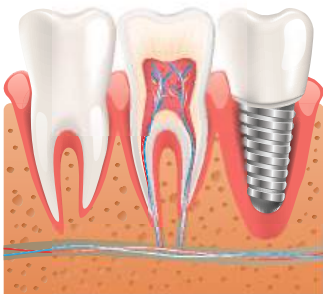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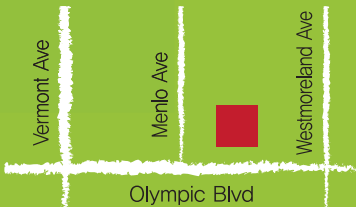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엄마는 괜찮아

그 한마디는 몸이 아파도
자식이 걱정할까 봐 건네는
엄마의 작은 거짓말이자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SMG는 잘 알기에,
늘 가까운 곳에서
최고의 의료진과 함께,
부모님의 마음에
하나의 불편함도 없도록
늘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MG**
서울메디칼그룹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AI가 답 주는데 책 왜 읽냐”고? 존 레녹스, 성경 읽기 감소 경고

기독교 변증가이자 옥스퍼드 수 학자인 존 레녹스가 “인공지능(AI)이 젊은 세대의 독서를 감소시키고, 결국 성경과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인류를 돕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 오히려 “매우 위험한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레녹스는 지난 7~9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 게일로드 오프리랜드 리조트 &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10회 ‘싱!(Sing!) 컨퍼런스’에서 동료 변증가 웨스 허프와의 대화를 통해 AI와 성경 읽기의 관계에 대해 전했다. 윌리엄 틴데일의 영어 신약 성경 출간 500주년을 기념해 열린 올해 컨퍼런스는 ‘성경의 교향곡’(Symphony of Scripture)을 주제로 진행됐다.

레녹스 박사는 “대규모 언어 모델의 부정적인 영향 중 하나는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독서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라며 “AI가 즉각적인 답을 제공하는데, 굳이 책을 읽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독서를 소홀히 하고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독서하도록 격려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



▲존 레녹스 박사. ©johnlennox.org

적인 기아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독서가 줄어들면 성경 읽기도 줄어들 것이고,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변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레녹스 박사는 “성경은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한 주된 ‘공격 무기’”라며 “신자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묵상하지 않는다면, 기독교회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프 박사는 “종교개혁 당시에는

성경을 일반인에게 직접 전달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 자체를 읽고 묵상하기보다 AI가 제공하는 요약에 의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정보를 제공하는 메커니즘과 실제로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깊이 탐구하는 것을 혼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모두 AI를 무조건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레녹스 박사는 AI를 “날카로운

칼”에 비유하며, “그것은 수술을 통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지만 살인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경 번역가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데 AI를 활용하는 것은 유망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기술이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만 ‘매우 위험한 주인’이 될 수도 있다”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AI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녹스 박사는 “진지한 기독교 신자들이 실제로 AI 연구에 참여해 성경적이고 윤리적인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AI를 인간과 같은 의식을 가진 존재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AI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젊은 세대가 과거보다 과학적 반론보다 ‘나는 누구인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는가’와 같은 실존적 질문을 더 많이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적이고 산만한 문화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먼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해야 한다”며 “답을 모를 경우에는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I가 삶을 가득 채우고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용한다면 현대의 우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이 있다. 이것이 진정한 희망”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싱! 컨퍼런스에는 약 7,000명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국제 교회를 위한 예배와 찬송 관련 자원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컨퍼런스를 최소 2030년까지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혜진 기자

러시아, 박태연 선교사 재판 재개… 9월 24일 선고 가능성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이민 관련 혐의로 구금된 한국인 박태연 선교사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될 예정이다. 지난 9월 1일 예정됐던 공판은 법원이 지정한 통역사가 출석하지 않아 진행되지 못했으며, 현재 재판 일정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각각 두 차례씩 잡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9월 24일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 선교사를 지원해 온 한국순교자의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 이하 한국VOM)는 박 선교사가 지난 1월 15일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체포된 이후 계속 구금돼 있으며, 현재 이민 관련 혐의 3건으로 최대 1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두 혐의는 각각 최대 5년, 나머지 한 혐의는 최대 7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박 선교사는 러시아에서 33년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복음 사역을 해왔으며, 70세 은퇴를 위해 한국



▲박태연 선교사.

으로 귀국하기 일주일 전 체포됐다. 당초 출국을 앞두고 있었지만 체포되면서 귀국하지 못했다. 현재 하바롭스크 외국인 임시구금시설에 수용돼 있다.

한국VOM 현숙 폴리(Hyunsook Foley) 대표는 박 선교사의 건강 상태에 대해 “한 곳에 계속 갇혀 있는 것에 지쳐 있기는 하지만 건강해 보이고, 면회객들에게도 그곳

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재판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이민법 위반 사건을 넘어 종교 자유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VOM은 러시아 당국이 박 선교사의 어린이 전도 사역을 문제 삼아 사건을 확대하고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 국영 통신사 RIA

는 지난 1월 23일 하바롭스크시 관계자를 인용해 “당국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종교 캠프에 대해 수개월간 조사를 진행해 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는 한국 국적자가 선교 활동을 하면서 러시아 사회에 이질적인 가치관을 주입하고 어린이들을 세뇌했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한국VOM은 “특히 하바롭스크 교육당국이 지역 교육기관과 보육기관에 보낸 통지문에서도 박 선교사와 어린이전도협회의 사역을 ‘세뇌’와 연결하는 표현이 사용됐다”고 전했다.

박 선교사는 미국에 본부를 둔 어린이전도협회와 연관된 사역을 해왔다. 러시아 당국은 지난 7월 6일 어린이전도협회를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내에서 해당 단체와 연관된 활동에 대한 법적 위험도 커진 상황이다.

박 선교사에 대한 재판은 당초 8월 10일까지 판결이 내려질 것으

로 예상됐으나, 법원의 일정 조정과 통역 및 증거·진술 번역 문제로 여러 차례 연기됐다. 한국 VOM은 지난 8월 11일 “9월 중 추가 공판이 여러 차례 열릴 수 있으며, 재판이 9월 24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국VOM은 박 선교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을 진행했으며, 한국에서 4천 명 이상을 비롯해 러시아와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서명이 모였다.

지난 4월에는 현숙 폴리 대표와 에릭 폴리(Eric Foley) 목사가 서명 운동 결과를 서울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전달하고 박 선교사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청원서는 한국 외교부와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에도 전달됐다.

박 선교사의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오는 9월 24일 전후로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신미셀 기자

2026
NICHE
BEST
SCHOOLS

TRUSTED SCHOOL IN TOWN



LEARN MORE

EDUCATE

ENABLE

EQUIP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Upper Campus

221 S. Juanita Avenue, Los Angeles, CA 90004
Lower Campus

CONTACT US!

(213) 487-5437

ncahuskies.org

파키스탄 헌법재판소, 소수 종교 출판물 금지 조치 합헌 판결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 연방헌법재판소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국가의 법률과 공공정책, 도덕적 기준에 종속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9월 10일 보도했다. 이번 판결로 파키스탄 내 소수 종교인들의 종교적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파키스탄 헌법재판소는 소수 이슬람 종파인 아흐마디아 공동체가 펴낸 23권 분량의 서적에 대해 판자브주 정부가 내린 출판 및 배포 금지 조치를 합헌으로 결정했다. 아메르 파루키 판사와 사이드 아르샤드 후세인 사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아흐마디아 공동체가 판자브 정부의 출판 금지 조치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청구인들은 판자브주의 금지 조치가 파키스탄 헌법 제20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논란이 된 아흐마디아 공동체의 서적 루하니 카자인 1권에서 23권은 지난 2014년 6월 판자브주 내무부가 형사소송법 제99조 A항을 근거로 압수 및 금지 명령을 내린 출판물이다.

청구인들은 라호르 고등법원과 몰탄 지방법원이 제소 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한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행정부의 출판 금지 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0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금지 조치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이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출판물의 실제 내용을 법정에 제출하지 않아 재판부가 추정만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청구인 측이 출판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질적 영향을 입증하는 대신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포괄적인 주장에만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행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Hamid Roshan/ Unsplash.com

주장이 기본권에 관한 일반적인 담론에 불과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출판 금지 조치가 행정부의 권력 남용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배척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출판물 압수 조치는 형사소송법과 2002년 제정된 언론 및 출판물 등록 관련 법령에 근거한 합법적 조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청구인들이 정해진 법적 기한 내에 정부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소송을 제기한 절차적 지연에 대해서도 합당한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이슬람 율법학자 위원회는 해당 서적들을 검토한 후 그 내용이 무슬림들 사이에 증오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압수를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절차적 결함과 입증 자료의 부재를 이유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종결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6명의 유엔 특별보고관이 파키스탄 내 아흐마디아 공동체를 겨냥한 차별과 법적 제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직후에 나왔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성명을 통해 아흐마디아 공동체 구성원들이 소수 종교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과 폭력, 사회적 배제를 겪고 있는 파키스탄 종교 탄압 실태를 지적했다.

다니엘 최 기자

러시아, 기독교 단체 기피 조직 지정 및 성경 파기 판결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러시아 검찰청이 기독교 선교 단체를 포함한 외국 기관들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러시아 내 종교 자유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9월 10일 보도했다.

종교 자유 인권 단체인 포럼 18에 따르면 러시아 법무부는 최근 미국에 본부를 둔 유라시아 선교회를 공식적인 기피 조직 명단에 추가했다. 현행 러시아 법률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오른 단체와 협력하는 시민이나 기관은 벌금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기피 조직 지정의 여파는 이미 러시아 전역의 지역 기독교 기관에 타격을 주고 있다. 지난 7월 법원은 모스크바 신학대 총장이자 러시아 복음주의 기독교 침례교 연합 회장인 포트르 미츠크비치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신학교 도서관을 검열하는 과정에서 유라시아 선교회가 출판한 기독교 리더십 및 사역 관련 서적을 발견했다는 이유다. 법원은 미츠크비치 총장에게 2만 루블(약 237.34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모스크바 인근의 또 다른 지역 교회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국은 한 지역 침례교 목사의 교회 내부에서 유라시아 선교회가 발행한 신약성경 178권과 요한복음 소책자 74권을 발견한 뒤 해당 목사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법원은 관리들에게 압수한 성경과 책자들을 모두 불태워 폐기하라는 이례적인 명령을 내리며 러시아 기독교 박해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출신인 세르게이 라후바 유라시아 선교회 총재는 러시아 정부가 단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어떠한 사전 경고나 해명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를 러시아 내에서 수년간 진행되어 온 광범위한 통제의 연장선으로 해석했다. 라후바 총재는 유라시아 선교회가 지

난 1991년 소비에트 연방 붕괴 이후 35년간 지역 사회에 헌신해 온 순수 종교 단체임을 거듭 강조했다. 선교회는 지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천 명의 청년 리더를 훈련하고 성경을 배포하며 교회를 개척해 왔을 뿐 정치적 반대 세력을 조직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선교회 측은 러시아 정부가 국가 통제를 벗어난 국제 연계 독립 기관들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라시아 선교회는 그동안 종교 자유 이니셔티브를 통해 러시아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의 인권 유린 사태를 지속적으로 기록해 왔다. 해당 보고서들에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납치와 고문 재산 몰수는 물론 모스크바 총대주교청 소속 러시아 정교회에만 특혜를 부여하는 차별적 행태가 상세히 담겨 있어 당국의 표적이 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라후바 총재는 단체에 대한 기피 조직 지정이 시민 사회와 독립적인 종교 활동을 장악하려는 국가 통제 패턴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소련 치하에서 성경을 이데올로기 무기로 간주하던 시절을 언급하며 오늘날 스스로를 전통 기독교 가치의 수호자로 자처하는 러시아가 오히려 외국 선교 단체와 연결된 성경을 가졌다는 이유로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모순을 꼬집었다.

침례교 연합 회장이 도서관에 보관된 책 때문에 법정에 서는 상황에서 일반 목회자들은 단순한 성경 소지만으로도 징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라후바 총재는 기독교 단체가 출판했다는 이유로 신약성경 폐기 명령을 내린 러시아 법원의 결정은 과거 소련 치하의 억압을 떠올리게 한다며 현지 신자들이 겪을 심리적 고통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다니엘 최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어린이성경공부 오후 1:30
백송찬양대 주일 오후 1:15

평일 영혼의심예배
- 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내세대에 예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종부기도일 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dson)
T. (213)386-2233

주일예배 1부: 8:30 am 주일 3부: 2:00 pm (영어/한국)
주일예배 2부: 11:00 am 새벽예배: 화-토 (6:00 am)
교육부서: 11:00 am 수요일예배: 7:00 pm

박병열 담임목사

미주평안교회
"문해로 결아온 50년, 비전으로 결아갈 NEXT 50년" (시 78:4)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T. (213) 381-2202 www.mijopeace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청소년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20 James M Wood Blvd, LA, CA 90015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여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 새을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수요일기도회 오전 10:00 분당

OMC 공동체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 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coffe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일새벽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주일 저녁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교동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교회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교동부 오전 10:5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새벽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중 담임목사

LA장로교회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407-160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세(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choonghyun.org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김은광 목사 **백승욱** 목사

우리가교회
성도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1060 Crenshaw Blvd(2F), L A, CA 90019
T. (323)610-6989, www.woorigachurch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동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교동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500-9791 / evergreenhill.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할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금요일 저녁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토교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가명훈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리십시오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월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정재민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청년부 오전 9:30, 11:30
한아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23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아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꾼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7: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9:15 토요일청교인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희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c.org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국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일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화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아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들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평일/교우부서)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714) 899-9191 / oclchurch.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교회학교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아 유자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평일 유자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부흥회 토 오전 6: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매달 마지막 금요일)

신용환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평일)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최원일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가야 하는 이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앤드루 데이비스 박사의 기고글인 ‘부모가 자녀와 함께 교회에 가야 하는 3가지 이유’(3 reasons to take your kids to church)를 9월 13일 게재했다.

앤드루 데이비스 박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제일침례교회(First Baptist Church of Durham)의 담임목사이자 ‘투 저니즈 미니스트리(Two Journeys Ministry)’의 설립자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이제 자녀들은 모두 다 컸지만, 다섯 명의 아이를 주일 아침마다 준비시켜 제 시간에 예배당에 데려가 앉전히 자리에 앉히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수고가 과연 가치 있었을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렇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마 19:14). 아이들은 자신이 주님께 속한 존재이며,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주일 아침마다 자녀들을 준비시키고 교회로 데려가기 위해 애쓰는 부모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라며, 자녀들을 교회에 데려가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나누고자 한다.

1.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보게’ 하기 위해
기독교 가정은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가정 안에서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아이들이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만 복음을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복음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직접 보는 경험 역시 매우 중요하다.

자녀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가르치는 일은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다.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마 16:26)라고 말씀하셨다. 지역 교회는 부모가 가정에서 전하는 동일한 복음을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들려준다. 목회자와 교사, 멘토와 또래 친구들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반복해서 전해지고, 그 메시지가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보여준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부모가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 그것을 익숙한 잔소리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때로 목회자나 교사, 멘토, 심지어 또래 친구를 통해 가장 적절한 순간에 동일한 진리를 다시 들려주신다. 그 진리는 아이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이끌 수 있다.

특히 공동체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아이가 태어나 성인이 될 때까지 18년 동안 매주 주일예배에 참석한다고 생각해 보라. 단순 계산으로도 900번이 넘는 설교를 듣게 된다. 그 말씀들이 오랜 세월 아이의 마음과 생각 속에 차곡차곡 쌓일 때 어떤 영향을 만들어낼지는 쉽게 계산할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복음의 열매를 실제 사람들의 삶에서 보게 된다는 점이다. 아이들은 복음이 단순한 부모의 주장이나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는 자녀들의 영혼에 오래 남는 증언이 된다.

2. 공동체 예배를 통해 ‘천국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스도의 나라는 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만 머물 만큼 작지 않다. 하나님은 수 세기에 걸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해 오셨다. 우리는 아직 요한계시록이 묘사하는 이 우주적 교회의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다. 그러나 지역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미리 엿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경험 가운데 하나다.

교회에 가면 아이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 나이가 다른 사람들, 살아온 환경이 다른 사람들, 성격과 직업이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일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한목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자기 가족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크고



앤드루 데이비스 박사. ©Christian Post

넓은 공동체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배운다. 18년 동안 반복되는 공동체 예배의 경험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거니신 이후 수 세기에 걸쳐 전 세계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아이들의 마음속에 각인시킨다. 그 결과 아이들은 자신의 신앙이 단순히 “우리 집이 믿는 종교”가 아니라, 시대와 문화와 국경을 넘어 이어져 온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아무리 신실한 부모라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제공하기 어렵다. 교회는 자녀들의 시야를 넓혀준다.

3.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룩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권면한다(히 10:25). 바쁜 현대 가정은 교회 예배를 쉽게 뒤로 미룰 수 있다. 스포츠 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여행이나 가족 행사가 생길 수도 있다. 주일 아침 피곤하다는 이유로 한 번 쉬었다가 그것이 반복될 수도 있다.

온라인 예배 역시 필요할 때는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편리함 때문에 공동체 예배를 지속적으로 대신하기 시작한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설교를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실제로 함께 모이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혼자서 완성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다. 우리는 이른바 ‘외로운 늑대’처럼 홀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의 동행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며, 짐을 나누도록 부름받았다.

부모에게 더 중요한 사실도 있다. 자녀들은 부모가 말하는 것보다 부모가 실제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끊임없이 지켜본다. 부모가 “교회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조금만 불편하거나 다른 일정이 생기면 예배를 쉽게 포기한다면, 아이들은 그 모습을 기억한다. 그들은 부모가 입으로 말하는 신앙과 실제로 살아가는 신앙 사이의 차이를 매우 빠르게 알아차린다. 반대로 부모가 주일예배를 삶의 중요한 중심으로 삼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준다면, 아이들은 예배가 선택 가능한 취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물론 단순히 교회에 자주 간다고 해서 아이가 자동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공동체 예배에 꾸준히 참여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그들의 평생 신앙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의 성품과 가치관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순종의 습관은 결국 예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하려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마 28:20).

힘들어도 데려갈 가치가 있다

주일 아침 아이들을 준비시키는 일은 힘들다. 신발 한 짝을 찾지 못해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고, 차 안에서 아이들이 다들 수도 있으며, 예배 중에 계속 움직이거나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다. 때로는 “이렇게까지 해서 교회에 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 자녀를 교회에 데려가는 것은 단순히 한 시간의 예배 프로그램에 참석시키는 일이다. 아이들이 복음을 반복해서 듣게 하는 일이고, 복음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일이며, 자신의 가족보다 훨씬 크고 오래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자신이 속해 있음을 경험하게 하는 일이다.

다니엘 최 기자

마이클 유세프 목사, 요르단 암만서 대규모 집회 500여 명 신앙 고백



지난 9월 4일 금요일, 요르단 암만의 요르단복음주의신학교 안뜰에서 열린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Christ Our Hope)’ 전도집회에 참석자들이 가득 모여 있다.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이집트계 미국인 마이클 유세프 목사가 이끄는 대규모 야외 전도 집회가 요르단 암만 외곽에 위치한 요르단 복음주의 신학교 캠퍼스에서 열렸다고 9월 1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지 기독교 언론 밀흐 일 아르드에 따르면 지난 4일 개최된 이번 집회에는 1600명 이상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유세프 목사가 설립한 선교 단체 리딩 더 웨이는 9일 성명을 통해 이날 집회 현장에서 500명 이상의 요르단 현지인들이 신앙을 고백했다고 발표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집회는 유세프 목사가 아랍어권 기독교 복음화를 위해 설립한 위성 채널 킵트 셋이 주관했다. 전직 요르단 국회의원이자 현 요르단 복음주의 협의회 회장인 이마드 마야가 행사의 호스트를 맡아 진행을 이끌었다.

이번 요르단 암만 집회는 마이클 유세프 목사가 사역의 무게 중심을 중동 선교로 전환하는 첫 행보로 평가받는다. 유세프 목사는 집회 전날 공개된 인터뷰를 통해 약 40년간 이끌었던 미국 애틀랜타 교회의 강단에서 최근 물러났음을 알렸다. 그는 아들 조나단의 권유에 따라 남은 사역 기간을 아랍 세계 기독교 복음화에 헌신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첫 시작을 요르단 암만에서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중동 선교 집중 선언 및 현지 교계 화합 도모

이날 집회에서 유세프 목사는 요셉 하위예 목사의 통역을 통해 마태복음 19장을 본문으로 ‘활짝 열린 두 팔’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그는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를 78바퀴나 돌며 복음을 전한 경험을 언급하며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는 세계 어디서나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만으로 가득 찬 시대 속에서 개인의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며 신앙적 결단을 촉구했다. 집회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요르단 현지 찬양대와 이집트 사역자들이 참여해 찬양과 설교가 어우러졌다. 집회 현장에서는 수백 명의 참석자가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행사가 끝난 후 요르단 성서공회는 참석자들에게 400권의 신약성경을 무료로 배포하며 영적 성장을 지원했다. 현지 교계는 이번 집회가 교파간 분열을 겪어온 요르단 기독교 공동체의 화합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요르단 복음주의 신학교 이마드 세하데 총장은 12년 전 유세프 목사를 처음 캠퍼스로 초청했던 일을 회고하며 이번 집회가 신학교의 핵심 가치와 맥락을 같이 하는 뜻깊은 행사였다고 밝혔다. 유세프 목사 역시 현지 교회 지도자들 사이의 영적 연합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리딩 더 웨이 측은 성명을 통해 현지 교단 지도자들이 이번 집회를 요르단 교회 행사 역사상 유례없는 모임이자 지역 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계기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미경 기자

호주 초등학교 교장, 4세 아동 대상 ‘성소수자 행사’ 거부 후 사임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호주 수도준주(ACT)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4세 유아를 포함한 초등학생들에게 동성애 및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성소수자 행사 개최 지시를 거부한 끝에 교단에서 물러났다고 9월 14일 보도했다.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성소수자 교육을 둘러싸고 호주 사회 전역으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문제가 된 행사는 ‘웨어 잇 퍼플 데이(Wear It Purple Day)’로, 호주 전역의 학교와 직장 등에서 열리는 연례 성소수자 인식 개선 캠페인이다. 이 행사는 성소수자를 포용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2026년에는 ‘용기의 색’이라는 주제 아래 성소수자 관련 대화가 드문 기관에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을 장려했다.

캔버라 보니슨 초등학교를 이끌던 자넷 로우 교장은 34년간 호주 공교육에 몸담은 베테랑 교육자였다. 그녀는 이 행사를 강행하는 대신, 괴롭힘의 이유를 불문하고 모든 학생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전국적인 ‘학교 폭력 예방 주간’ 행사로 대체할 것을 교육 당국에 정중히 제안했다.

로우 교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성소수자 행사가 결코 단순한 옷 입기 캠페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교사들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게 복잡한 성적 개념과 생활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데, 학교는 어린아이들과 성적인 문제를 논의할 적절한 장소가 아니라고 소신을 밝혔다. 아울러 4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에게 동성애 교육을 비롯한 민감한 주제를 가르치

는 것은 온전히 부모와 가족의 권한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호주 수도준주 교육청은 로우 교장을 본부로 소환해 강한 압박을 가했다. 교육청은 교직원들이 그녀의 완고한 입장 때문에 사직을 고려하고 있다며 책임을 전가했고, 그녀를 직접적인 특별 감독 대상에 올렸다.

교육청으로부터 보라색 옷을 입고 행사에 참여할 것인지 묻는 노골적인 질문을 받은 로우 교장은 결국 3쪽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하며 자신의 굳건한 교육적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그리고 평생을 바쳐온 정든 교직을 스스로 내려놓는 길을 택했다.

공교육 시스템은 34년 헌신한 유능한 교육자를 매몰차게 외면했지만, 그녀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자 뜻밖의 곳에서 따뜻한 지지의 손길이 이어졌다. 호주 크리스천 로비(ACL) 소속 작가 데이비드 미클로스에 따르면, 로우 교장을 옹호하고 나선 지지자 중에는 4세 자녀를 둔 레즈비언 어머니와 동성애자 남성, 무신론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대거 포함됐다.

교육 당국은 로우 교장이 단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그녀의 교육적 판단에 공감하며 힘을 실어주는 비기독교인들의 폭넓은 연대는 교육청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된 교육청의 과거 인사 평가 기록에서 그녀는 상사로부터 ‘40년 경력 중 만난 최고의 리더’라는 극찬을 받았던 매우 뛰어난 교육자로 확인됐다.

다니엘 최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마지막주)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 (화-금) 오전 6:00 (토)

박종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e,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rlsla@hnsi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예수의 제자로 성숙해지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 1부 09:00AM - 2부 07:30AM
EM 주일예배 - 1부 09:00AM - 2부 11:00AM
새벽예배 - 평일(월-금) 05:00AM, 토요 예배 06:00AM,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주일 1부 8:00 AM
주일 2부 9:30 AM (각 교육부 예배)
주일 3부 11:20 AM (각 교육부 예배)
한여름전부 1:30 PM / 영아대학부 2:00 PM
EM(dscp) 1부 9:30 PM / 2부 11:00 AM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 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 예배 (KM) 오전 10:30
주일 예배 (EM) 오전 10:30
유년부 (K-2) 오전 10:30
초등부 (3-5) 오전 10:30
중·고등부 (Youth) 오전 10:30
대학청년부 (College) 오전 10:30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오전 9:4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유아, 유치부 오전 11:00
초·중·고등부 오후 11:00

이종천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사랑으로 하나되고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213) 999-9298 www.nachimban.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타주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후 12:00
점원이 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리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이기리움) 오전11:00
영아부예배(만물창)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여름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주일 2부 9:30AM
주일 3부 11:15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중고등부 9:30AM/11:15AM
수요기도회 7:30PM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아노리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오전 9:00
EM예배 (2부)오전 11:00
한여름전부 주일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전 12:30
주일 EM예배 오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일성경집회 저녁 7: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 토 오전 6:00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6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성령공부 풍요로운 삶 오전 9:30
화요 3:33 기도회 매달 둘째주 오전 10:30 목요 TEE 영육 Zoom 오후 7:30
목요 가리전도 오전 10:00 한민타운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송금관 담임목사

평강교회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T. (213)393-9136 http://pyongkang.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8: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중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00
토요새벽예배 오전 7:00 E.lvk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index.php

장년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수요일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조종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joeunchurch.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0:45
주일학교 오전 11시
Youth 오전 10:45, 오후 1시

세신자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
제자훈련 주일 오후 1시
금요예배 저녁 7시
새벽예배 오전 6시(화-금)

김광석 담임목사

라운드라교회

2011 Cade Lk, Round Rock, TX 78664
T.(512)228-1934 https://www.rmkpc.net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30

청년부 주일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30

홍경현 담임목사

헨더슨주사랑장로교회

2 S. Pecos Rd, Henderson, NV 89074
T. (702)304-0324 / http://hendersonk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학
생
모
집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교
B.th, Th.M, M.Div, D.Min, Th.D
coafs-07-388665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신학박사 인가 대학은 3곳**뿐입니다.

■ 학교운영하실 분 \$7만불 (신학철학책 1만권 포함)

■ 나성중부교회 김 호 박사 / 캘리포니아 디렉터

213-507-1933

INNEX PRO
Collision Center

아이넥스 프로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213-383-1230
2811 Leeward Ave., LA, CA 90005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베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FOP SERVICE, INC.
PLUMBING License# 1139798

업체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불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앉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정력강화**

**베베는 숙변제거와
면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당일 \$70**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 마음이 편해지는 장례플랜

장례플랜
화장, 매장
Worldwide FAMILY INC.
Representing Family Owned & Operated Funeral Homes
이한주 장례 전문상담사 CA Lic, #OK41143 213.321.8787

- ① 물가상승 대비 장례비용 고정
- ② 사망시 속한 장례 절차 진행
- ③ 원하는 화장 또는 매장방식 설정
- ④ 부담없는 장례요금 할부 계획
- ⑤ 만성질환, 정부 혜택 수혜자도 가입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절망의 거리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

19일(토) 라이프웨이 교회 SKID ROW 지역에서 오디션

오는 9월 19일 LA 다운타운 스킨드로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의 재능을 나누는 음악 행사 열린다.

‘스킨드로 갓 탤런트’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라이프웨이 교회(Lifeway Church, 419 E. 6th St.)에서 예배로 시작된다. 11시 20분 점심 식사 후, 12시부터 오디션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가 열리는 스킨드로는 LA 다운타운에서도 노숙과 빈곤 문제가 집중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주최측은, 이러한 환경 속

에서 음악과 예술을 통해 지역 주민들 섬기고, 그들의 회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9월 19일(토) 오전 10시 20분부터 진행되며, 장소는 라이프웨이 교회다. 주차는 인근 유니온 레스큐 미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조셉리 기자
일시: 9월 19일 (토) 10:20
장소: 라이프웨이 교회 419 East 6th Street, LA, CA 90014
주차: 유니온 레스큐 미션 주차장 (545 San Pedro St, LA, CA 90013)

YOU'RE INVITED

SKID ROW GOT TALENT

AN AFTERNOON OF TALENT, HOPE & COMMUNITY

SATURDAY
SEP 19
2026

VOLUNTEERS ARRIVE BY - 10:00 AM
SERVICE - 10:20 AM
LUNCH - 11:20 AM
AUDITION - 12:00 PM
Enjoy live performances and celebrate our Skid Row community.

YOUR PRESENCE MATTERS
COME ENCOURAGE OUR COMMUNITY

Bring your family and friends. Everyone is welcome!

LIFEWAY CHURCH
419 East 6th Street | Los Angeles, CA 90014
LUNCH WILL BE SERVED AT 11:20 AM

PARKING AVAILABLE
UNION RESCUE MISSION PARKING LOT
545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3

COME CELEBRATE | COME ENCOURAGE | BE PART OF THE STORY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wonderful light.
1 PETER 2:9

논산 육군훈련소서 장병 3,200명 진중세례식

한국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장병 3,20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진중세례식이 거행됐다.

사단법인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KAF-SP) LA 회장 최학량 목사는 지난달 29일(토)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진중세례식에 참석해 장병들에게 직접 세례를 집례하고 격려사를 전했다.

최 목사는 이날 장병들을 향해 “결코 포기하지 말라(Never give up!)”, “할 수 있다(I can do!)”, “돌파하라(Break through!)”는 세 가지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최 목사의 선장에 따라 장병들이 세 구호를 함께 힘차게 외치면서 행사장은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가득 찼다.



이번 진중세례식은 제679차로 진행됐으며, 주최 측에 따르면 지금까지 진중세례식을 통해 세례를 받은 장병은 누적 약 860만 명에 달한다.

최학량 목사는 그동안 군선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모두 21차례에 걸쳐 진중세례식에 참여했다. 세례 집례뿐 아니라 설교와 축사, 격려사 등의 순서를 맡아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격려해 왔다.

진중세례식은 ‘전군 신자화’와 ‘신앙 전력화’를 기치로 장병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사생관을 확립하도록 돕는 군선교 사역으로 이어져 왔다.

이번 세례식은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와 늘푸른초장교회가 공동 주관했다.

한편 최학량 목사는 미주성시화운동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NEW CREATION CHURCH 원로목사로 섬기고 있다.

남가주 소식

▶ 임동선 목사 기념 창작 뮤지컬 동양선교교회 설립자 고 임동선 목사의 선교 정신을 담은 뮤지컬 드라마 ‘지극존은 나의 목장’이 오는 19일 오후 6시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무대에 오른다. 일시: 9월 19일(토) 오후 6시 장소: 남가주 새누리교회

▶ 주영훈 집사 초청 간증집회 감사한인교회 9/18 금 오후 7:30 동양선교교회 9/20 주일 1:30

▶ Youth KOSTA Irvine 한인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2026 Youth KOSTA Irvine이 오는 9월 18일(금)부터 20일(주일)까지 엘바인 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일시: 9월 18일(금)-20일(주일) 장소: Irvine Onnuri Church

▶ 동양선교교회 이웃초청 음악회 19일 토 오후 2시 대한노인회 미주총연합회 주최 이웃초청 음악회가 19일 2

시에 열린다.

▶ 샬롬 센터 주최 목회자 내집 마련 세미나 샬롬 센터가 주최하는 목회자 내 집 마련 세미나가 오는 9월 28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나성영락교회에서 열린다. 샬롬센터 대표 이지락 장로가 주택 구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와 전략을 소개하며 주택 구입 상담을 제공한다.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Solar
&
Roof

집수리
일체

“26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Kitchen팀, Bathroom팀, ADU 전문, Roofing팀, Solar 설치팀, 마루시공팀, Carpentry팀, 전기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 Stucco팀, 철공팀, 페인팅전문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완전 전문가 Crew로 구성)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www.kurbanbuilders.com
www.en.kurbanlike.com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K-Urban Builders
K-Urban Like CSLB # 854389

견적
상담

213-310-1800
LA 2621 W. Olympic Blvd. # 206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213-798-2200
OC 6904 Oran Cir.
Show Room Buena Park, CA 90621

강준민 칼럼

어떤 것은 시간을 통과해야만 아름다워집니다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좋아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름다운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반드시 시간을 통과해야만 아름다워집니다. 오래된 나무가 아름다운 것은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진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깊은 성품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름다움 속에는 시간과 기다림과 인내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흔히 겉모습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움은 성품의 아름다움입니다. 겉모습의 아름다움은 세월과 함께 변하지만 성품의 아름다움은 세월과 함께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더 온유해지고, 더

너그러워지고, 더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지만 쓴 뿌리가 없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성품에는 온유가 있고 겸손이 있습니다. 절제가 있고 배려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품의 밑바닥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품과 인내 사이에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성품을 즉시 주시기보다 때로 시간을 통해 빚어 가십니다.

야고보도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약 1:4).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전히 이루어”는 말씀입니다. 성숙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아침에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기다림은 사랑이며, 지혜입니다.

어떤 것들은 기다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씨앗을 심은 뒤 매일 땅을 파헤쳐 보면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씨앗을 심었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뿌리가 내리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햇빛과 비를 통과하도록 기

다려야 합니다. 계절을 통과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기다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속도를 숭배합니다. 빨리 성

아름다움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품은 기다림 속에서 자랍니다

공하고 싶고, 빨리 응답받고 싶고,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사람도 빨리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빨리 성숙하기를 원하고, 배우자가 빨리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빨리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속도가 언제나 성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빨리 자라는 것보다 깊이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함은 우리로 하여금 아직 익지 않은 열매를 따게 합니다. 서두름은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가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조금함 때문에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반면 요셉은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감옥에서도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기름부음을 받은 날 곧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

다. 인내만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으며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다림은 수동

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내는 능동적인 삶입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자라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처가 아물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깊어지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뢰가 쌓이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다고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은 땅속에서 먼저 자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일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늦추심으로 우리를 깊게 만드십니다. 응답을 기다리게 하심으로 기도를 깊게 하십니다. 사람을 기다리게 하심으로 사랑을 깊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성품을 깊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시간을 통과해야만 아름다워집니다. 기다림을 견디십시오. 기다림을 사랑하십시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지만 결코 늦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입니다(전 3:11). 아름다움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숙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 빚어집니다.

진유철 칼럼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오래전에 러시아의 사회주의혁명을 꿈꾸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반정부 비밀 조직에 가담했다가 총살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 아슬아슬한 찰나로 달려온 전령의 황제 사면명령으로 간신이 살아났습니다. 대신 그는 악명 높은 시베리아 수용소로 유형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기차가 한 시골 역에 멈춰 서게 되었고, 거기서 한 독일 여인이 신약 성경 한권을 그에게 건네주

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고통스러운 유배 생활을 시작했는데, 여인이 건네준 그 성경책을 꺼내들고 톼툼이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모진 시베리아 수용소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그 청년은 훗날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지하실의 수기, 백치’와 같은 인류 문학을 빛낸 불멸의 명작들을 남기게 되는데, 그가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입니다. 만약 그때 특사가 조금만 늦게 사형집행장에 도착했다라면, 시베리아 수용소로 가는 그 기차가 우연히 그 시골에 멈추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여인이 건네주는 신약 성경책을 받지 않았더라면, 단 하나의 사건이라도 어긋났다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도스토예프스키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연과 같은 사건들을 연결시켜서 우리 하나님 사람들의 인생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안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수준을 뛰어넘는 일들을 실수가 없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맡김이 곧 믿음
기도가 만드는 역전
참된 안식의 삶

엘로우스턴에는 벼락이 떨어져서 자주 불이 나는데,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이 제일 회복이 빠르고 온전하다고 합니다.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 100배나 많은 방사능이 유출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회복에 몇 백 년 걸린다고 했지만 손을 못 대고 놔두었더니 지금 거의 전국처

럼 되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코로나 팬데믹 때 오히려 환사와 미세먼지가 없어지고 자연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도 보았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외적인 상황만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지 말고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기도로 맡기면 하나님의 기운이 전이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스테판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하기 전 기도 중,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돌이 날아와 때려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기까지 합니다.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많은 영혼에게 전도하고 바울까지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상황도 역전승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맡겨서 참된 안식을 얻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2026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상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켜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1.aurahelio@gmail.com
전화 1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Th.M 신학석사
-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M.Div 목회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ia.edu

제 4기

성경필사 장학생 모집

말씀을 쓰다, 믿음을 새기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로마서를 쓰며
주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며,
가슴 깊이 새겨진 구절마다
생명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신청을 기다립니다.

35명
선발

1인당 장학금
\$1,000

지난 장학생들이 고백한 은혜의 이야기

“

“필사하는 동안
제 삶이 변했어요.”

“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제게 열려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서서히, 저는 제가
붙들고 있던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

“나는 성경 필사를 통해
희망을 품게 되었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주님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 프로그램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

“하나님께서 성경과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 아는 것은
정말 귀중한 경험이
었습니다.”

성경필사 본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본문 (한글, 영문 중 선택 가능)
응모대상	현재 재학중인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나이 만 14세~25세)
신청방법	QR 코드 스캔 후 신청
신청마감	2026년 11월 6일 (토)까지
장학생 선정발표	2026년 11월 13일 (토) 개별통보
필사노트 제공 및 교육	2026년 11월 20일(토) 오전 10:30 LA 장로교회 (한현중 담임목사)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장학금 전달식	2027년 7월 중 (장학생들에게 날짜와 장소는 추후에 알려 드림)
문의	기독교일보 213-434-1170 chdailyreporter@gmail.com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신청 QR 코드



QR 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주최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주관



크리스천 다음세대 연구소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105

목동 칼럼

버린 돌을 머릿돌로!



신 병 옥 목사
미라클LA교회
비전 50 선교회

지난 9월 5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글로벌감리교회(GMC) 총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The Beauty of Holiness)’이라는 주제 아래 세계 각지에서 모인 목회자와 평신도 대의원들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성경적 거룩함을 온 세상에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겠다는 결단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이번 총회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GMC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55개 연회, 7,250개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연회들은 8개의 감독교구로 편성되었고, 총회에서는 앞으로 6년 동안 세계교회를 섬길 8명의 감독을 선출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필자에게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다가온 사건은 필자가 섬기고 있는 미라클 LA 교회와 한미연회가 속한 제2감독교구에서 이성현 목사님(하와이 로렐교회 담임)이 감독으로 선출되신 일이었습니다.

GMC 제2감독교구는 미 전역에 있는 한미연회를 비롯하여 불가리아 연회, 멕시코 연회, 바이블 벨트에 위치한 가장 큰 규모의 연

회 가운데 하나인 미드텍사스 연회, 미북동부 연회, 그리고 아프리카 케냐 인근의 마사리키 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총회를 앞두고 지난 상반기 동안 제2감독교구 대의원 모임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발하기 전, 제2감독교구 내 감독 후보자들의 순위가 발표되었습니다. 당시 이성현 목사님은 세계 여러 지역으로 구성된 감독교구 안에서 지명도와 유명세, 교단 정치 경력 등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밀려 네 번째 순위의 후보로 출발하였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만 본다면 감독이 되실 가능성은 무척 희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필자가 과거 20년 동안 몸담았던 미국 교단을 돌아보면, 감독이 되신 분들 가운데 오랫동안 로컬교회에서 묵화하며 성도들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고 존경받던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 로컬교회 목회 경험은 많지 않은 채 교단 정치에서 쌓은 인지도와 유명세, 경력을 바탕으로 감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로컬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희로애락을 온전히 공감하지 못한 채 회의실 책상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때로는 종교 권력처럼 느껴지는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책상 위의 결정’과 종교 권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분 가운데 한 분이 이번 요하네스버그 총회에서 감독이 되신 이성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필자와 성도들은 지난 1년 반 동안 새벽마다, 그리고 모임마다 기도하였습니다. 고난받았던 주의 종이, 오랜 세월 로컬교회에서 묵묵히 묵화하셨던 주의 종이 감독이 되어 세계교회를 섬기게 해 달라고 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인교회가 간직해 온 특별한 영적 자산들이 세계교회를 섬기는 귀한 자산이 되게 해 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람의 예상을 넘어서
성령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신가?’ 하는 생각들이 정도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현 목사님은 후보자들 가운데 끝자락에 해당하는 순위로 총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어올 성령의 바람과 역사를 기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꺼져 가는 불꽃을 바라보는 듯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기대와 염려, 두 마음이 교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필자에게 보란 듯이 성령의 역사로 요하네스버그 총회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성령님께서 사람의 순위와 예상을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사람들의 계산을 뛰어넘어 역사 하셨습니다. 같은 감독교구 안에 있는 압도적인 규모의 미드텍사스 연회에서 추천된 백인 후보자가 아니라, 평생 로컬교회 묵화에 헌신해 오신 한국인 이성현 목사님을 감독으로 세우셨습니다. 소망이 희미해 보이던 상황에서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이번 중의 이번’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잠시 회고해 보면, 사실 이러한 이번은 이미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통해 ‘이번이 이번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우리 역시 머릿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된 ‘산 돌’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40년이 넘도록 몸담았던 교단에서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반대하셨던 이성현 목사님은 이전 교단의 건축자들에게는 버린 돌과 같이 되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돌을 다시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께 연결된 산 돌로 세우시고, 이제는 세계교회를 섬기며 신령한 집을 세워 가는 지도자로 세워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요하네스버그 총회는 끝이 났습니다.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글로벌감리교회는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함을 지키며, 성령의 다스리심을 따라 여덟 감독을 성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 사람들의 평가에서 밀려났던 사람, 심지어 버린 돌처럼 여겨졌던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세워 가십니다. 사람이 버린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자리에서, 사람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는 머릿돌로 사용하십니다. 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 주님께 두 손 들어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김한요 칼럼

눈 높이만 낮아져도 세상이 달라진다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한 달 전, 발목을 다친 후 한달간 깁스부츠를 신고 다녀야 했는데, 그런 중에 알래스카와 산호세에 미리 약속된 집회와 이사회 참석차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공항에서 체크인을 하자마자 휠체어를 주문하게 되었고, 체크인 할 때부터 게이트까지 휠체어 서비스를 받게 되었습

니다. 공항 봉사 요원들이 밀어주는 휠체어에 난생 처음으로 앉으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젊은 학생이 눈치 없이 노약자 보호석에 앉은 기분이랄까,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는 듯해서 얼굴을가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저를 쳐다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방을 끌고 다니는 여행객들이 부딪치지 않기 위해 피해가는 정도이고, 그 누구와도 눈이 마주친 적이 없었습니다.

휠체어가 가르쳐준 것
새롭게 보이는 사람들
낮아진 눈높이

세상은 내 생각과는 달리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역시 건강한 발로 다닐 때에는 휠체어가 옆을

지나가도 휠체어 탄 사람의 얼굴을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다행이다 싶다가도, 평생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야 할 장애인들을 생각하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싶습니다.

또 한가지 깨달은 것은 휠체어 탔을 때, 걸어 가는 눈높이 보다 훨씬 낮지만, 걸어 다닐 때 못 봤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휠체어 탄 분들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웬지 휠체어를 보기만 해도 반갑고,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로 아픔의 공통분모를 가져서 동지애가 느껴 지기도 합니다. 앉아서 공항을 보는 눈은 한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올려다 보게 되고, 가게 간판들도 더 높이 달려 있는 것 같고, 또 자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밀어주는 의자에서 세상을 보니 신기하게만

보입니다.

주일예배 때는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기가 불편해서 예배당 무대 뒤쪽에 임시 책상을 두고 거기서 대기했습니다.

비록 예배당 입구에서 늘 만나는 예배안 내담은 볼 수 없었지만, 오히려 베델워십팀, 베델오케스트라가 분주히 예배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시간에 맞추어 초긴장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자녀를 둔 팀원은 함께 데리고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아이들도 적응이 되었는지 조용히 엄마 아빠를 기다려주는 모습을 봅니다.

발목 부상으로 맘껏 운동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눈 높이를 낮추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 것 같았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겸손히 눈 높이를 낮추면 못 보던 것을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TV 기독교일보 신앙간증

늘 새롭게

당신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미주 기독교일보 유튜브 신앙 간증 프로그램 “**늘 새롭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신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늘 새롭게'에 나오셔서 진솔하게 신앙간증하실 분이나
주위에 추천하실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신청 및 문의 : 기독교일보 213-739-0403/chdailya@gmail.com

*미주기독교일보 유튜브에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CDTV 미주 기독교일보**'를 검색하세요

샌디에고 갈보리장로교회, 11명 직분자 세워

샌디에고 갈보리장로교회(김도일 목사)가 13일(주일) 오후 1시 30분 본당에서 ‘임직감사예배’를 드리고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 등 11명의 직분자를 세웠다.

교회는 이번 임직감사예배에 ‘God People, God Purple’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직분자들이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도일牧사는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사명에 따라 충성된 일꾼들을 부르신다”며 “오늘 직분을 받는 임직자들도 갈보리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며 세워진 충성된 일꾼들”이라고 전했다.

이어 “임직을 받는 모든 분들이 이 직분이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특별한 은총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한다”며 새롭게 세워진 직분자들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당부했다.

제1부 예배는 김도일 목사의 인도로 갈보리 찬양팀의 찬양, 허평강 목사(갈보리사랑교회 담임)의 대표기도에 이어 구분철 목사(GMI 선교사후련원장·갈릴리온교회 원로목사)가 요한복음 21장 17절을 본문으로 ‘내 양을 먹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구분철 목사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장면을 중심으로, 직분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리임을 강조했다.

구 목사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



© 샌디에고 갈보리장로교회, ‘God People, God Purple 임직감사예배’

라보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취지로 전했다.

이어 제2부 임직식이 진행됐다. 명예장로에는 강정섭·김원, 시무장로에는 변석재·여영인, 안수집사에는 이일용 씨가 임직했다. 시무권사에는 김근영·박용미·심현아·윤진이·이선미·이성자 씨가 세워졌다.

안수위원들은 장로와 안수집사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고, 이들의 섬김을 통해 교회와 가정,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기도했다.

김도일 목사는 안수식 후 11명의 임직을 공식 선포했으며, 교회는 임직증서와 임직패를 전달했다.

특히 이날 교회가 각 직분의 사명을 상징하는 선물을 준비해 눈길을 끌었다.

명예장로들에게는 ‘교회의 향기’가 되어 달라는 의미를 담아 방향제와 성경책을, 시무장로와 안수집사에게는 교회를 위해 부지런히 뛰며 섬기라는 뜻으로 운동화와 앞치마를 전달했다. 시무권사들에게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 달라는 의미를 담아 기도도의자를 선물했다.

이어 임직자들의 다짐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으며, 황영진 집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축가로 불렀다. 이병희 목사(샌디에고 한빛교회 담임)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의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을 들어 임직자들을 권면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

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준비시킨다”며 “먼저 순종하면 그 사람을 준비시키고, 먼저 따라가면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베드로 역시 실수가 많았고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지만 “넘어져도 주님께 돌아갔다”며 “나를 부르신 분께서 계속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겸손함이 있을 때 직분자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임직의 자리는 더욱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순종해야 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변석재 장로는 “부족한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다”며 “귀한 직분과 소명 앞에 감사와 함께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임직자를 대표해 답사했다.

변 장로는 “우리가 물질적인 도움과 세속적인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정작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능력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나의 의로움과 자존심, 유익을 내려놓고 교회의 유익을 먼저 구하겠다”며 서로 다른 생각과 세대가 함께하는 이민교회 안에서 소통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임직자 일동이 ‘교회’를 특송했으며, 이준희 목사(샌디에고 새소망교회 담임)의 축도로 임직감사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김민선 기자

‘고난 통한 영광’ 복음 본래적 역설로 돌아가야.... 조록형 목사

[이전호(1024호 17면에 이어서)]

현재는 30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한국어 학부 박사 과정에 등록해 열정적으로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록론을 전공했으며, 현재 모교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록론, 구원론, 삼위일체론, 기독교 윤리학 등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과 함께 신학적 사유를 나누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발견해 가는 일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자 감사의 이유입니다.”

- 『십자가가 사라진 현대교회』에서 지양해야 할 신학으로 ‘변영신학’을 말씀하셨습니다.

“변영신학을 비판하면서 특정 인물들을 언급한 것은, 개인의 신앙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대표하는 신학적 구조, 특히 성경의 축복 개념을 인간 중심으로 재해석한 사유가 오늘날 한국교회에 깊이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변영신학의 근원은 20세기 초 미국 신사고 운동(New Thought Movement)과 ‘긍정적 사고의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E.W. 케넌(E. W. Kenyon)이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법칙’을 주장하면서, 믿음이 하나의 영적 에너지 혹은 법칙처럼 작동한다

고 설명했죠. 그의 신학은 성경의 구속적 믿음을 인간의 언어적 선언과 사고의 힘으로 대체했습니다. 즉 ‘믿음이 곧 현실을 창조한다’는 신비주의적 관념을 신학의 중심으로 둔 것입니다.

이 사상을 신앙의 원리로 발전시킨 이가 케네스 해긴(Kenneth E. Hagin)입니다. 해긴은 ‘예수 이름의 권세’와 ‘긍정적 고백’을 강조하면서, 믿음의 말이 현실을 바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신학에서는 십자가 고난보다 신자의 권세와 부요함,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이 부각됐습니다.

이런 신학은 고난과 자기부정이라는 십자가의 본질을 가리게 됩니다. 오럴 로버츠(Oral Roberts)는 이러한 사상을 대중화한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는 ‘씨앗 신앙(Seed Faith)’을 통해 헌금을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짓는 신앙 체계를 확립하며, 물질적 헌금이 곧 축복의 씨앗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사역은 거대한 TV 복음화 운동을 일으켰지만, 동시에 복음의 중심을 ‘자기 실현’과 ‘경제적 번영’으로 옮겨 놓는 결정적 전환점이 됐습니다.

저는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이 ‘십자가를 결과로만 본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들에게서 십자가는 죄의 대속 사건이 아니라, 부요

와 성공의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 비움(케노시스, 빌 2:6-8)’이며, 인간의 욕망을 초월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변영신학은 단순한 교리적 차이를 넘어 복음의 방향을 뒤집어 놓는 신학적 왜곡입니다. 그것은 고난을 피하려는 신학, 세상에서의 성공을 복음의 증거로 착각하는 신학이며, 결과적으로 십자가 없는 부활, 은혜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위험한 신앙 형태를 낳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이런 신학적 경향을 비판하면서, 다시 ‘고난을 통한 영광’이라는 복음의 본래적 역설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십자가 위에 서 있을 때만, 세상 욕망과 달리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십자가 신학의 상황성을 설명하기 위해 역사적 상황과 인물들을 몇 분 소환하시는데, 그 부분을 요약해 주신다면.

“책 1부에서 전하고자 한 핵심은, 십자가 신학이 특정 시대 교리나 신학적 담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의 역사적 위기 속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갱신돼 온 복음의 중심 진리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십자가 신학의 본질이 언제나 ‘상황적(contextual)’이라는 사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시가 각 시대의 역사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새롭게 이해되고 실천돼 왔다는 진리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초대교회 사도 바울을 살펴 봤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는 로마 제국의 권력과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강력하게 작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는 그 두 체계 속에서 십자가를 ‘세상의 지혜를 부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했습니다.

바울에게 십자가는 단순한 구속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함과 고난이라는 역설적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는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십자가 신학은 신앙의 한 주제가 아니라, 기독교 존재 전체를 규정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를 다루었습니다. 루터는 당시 교회의 부패와 형식주의,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영광의 신학(theologia gloriae)’을 비판하며,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crux sola est nostra theologia)’라고 선언했습니다. <계속>

“

사역자는 있는데,
사역할 차량이 없습니다”

+

당신의 차량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갑니다.



복음의 길을 열어줍니다
교회, 선교지, 캠퍼스,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됩니다.



사역자를 연결합니다
예배자, 아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사랑의 자리로 연결합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힙니다
국내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됩니다.



당신의 믿음을 남깁니다
후대에 남겨질 믿음의 유산,
하나님의 일에 사용됩니다.

당신의 차량기부가
복음의 여정이 됩니다!

남아도, 오래되어도 괜찮습니다.
운행이 어려워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선교지 이동



캠퍼스·청소년 사역



지역사회 섬김



교회 및 기관 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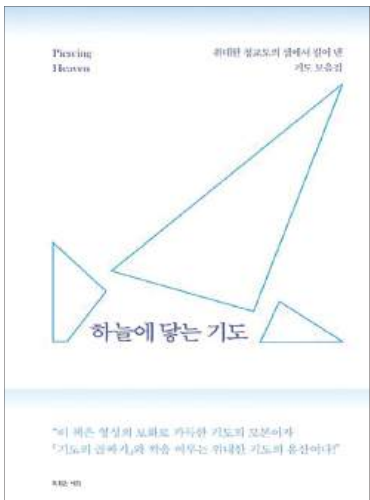
차량도네이션

문의 및 신청
☎ 213-434-1170
chdailya@gmail.com

주관: 기독일보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위대한 청교도의 샘에서 길어 낸 기도 모음집

하나님을 배우고 찬미하게 하는, 기도의 모범



하늘에 닿는 기도

로버트 엘머 | 송동민 역
복있는사람 | 468쪽

“하늘에 닿는 기도는 곧 우리 자신의 마음을 꿰뚫는 기도다.”

청교도들에게 기도는 사소하거나 따분한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 자비를 간구하며 기쁨으로 찬미의 기도를 드렸다. 그 기도에는 깊고 풍성한 신앙이 담겨 있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은 거룩한 삶의 모습을 생생히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청교도들의 삶에는 따뜻한 경건과 섬세한 지성이 어우러져 있었다

아서 베넷이 쓴 『기도의 골짜기 (The Valley of Vision)』를 처음 접한 것은 신학교에서 기도 수업을 들었을 때다. ‘위대한 청교도의 샘에서 길어 낸 기도 모음집’이란 부제가 말해주듯,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열렬히 사모하던 청교도의 기도 하나하나를 나의 기도로 옮기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아멘을 외치며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더 풍성하게 채울 수 있게 한 소중한 도구였다.

‘이런 책이 또 나올 수는 없을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현실로 이루어졌다. 로버트 엘머가 편집한 『하늘에 닿는 기도』는 ‘위대한 청교도의 샘에서 길어 낸 기도 모음집’ 두 번째 책이 출간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Piercing Heaven』의 번역서이기도 하다.

『하늘에 닿는 기도』는 16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1) 내게 기도를 가르치소서 2) 주께 도움을 청하게 하소서 3) 의심에서 건져 주소서 4) 슬픔과 고난의 때에 나를 도와주소서 5) 유혹을 이기게 하소서 6) 주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7)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8) 주일과 성찬을 준비하게 하소서 9) 내 삶을 취하시고 거룩하게 하소서 10) 이웃에게 복을을 전하게 하소서 11) 내 죄를 용서 하소서 12)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3) 하루의 시작을 도와주소서 14) 하루의 삶을 도와주소서 15) 하루를 마무리하며 드리는 기도 16)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기도문 원저자인 청교도인들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리처드 벅스터, 리처드 십스, 매튜 헨리, 스티븐 차녹, 윌리엄 거널, 제러마이어 버로스, 조지 윌필드, 존 번역, 존 오웬, 토머스 브룩스 외에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 이들이 많이 있다. 각 저자에 관한 짤막한 설명이 책 뒤에 수록돼 그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한 점이 참 좋았다.

청교도가 쓴 기도문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좋다고 생각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하지만 청교도가 드

린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이 성경으로 기도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많은 기도문에 성경 구절이 각주처럼 달려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의 고백이 성경의 고백을 담아낸 것이란 흔적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청교도인의 특징인데, 그것이 기도문에도 고스란히 담긴 것이다.

다른 특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높이고 그 앞에서 죄인이 취해야 할 겸손한 태도를 적극 갖춘다는 것이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자기중심적인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 자체를 높이 기보다는 자기의 유익과 요청에 관한 응답만을 구하는 기도로 채워져 있는가?

청교도의 기도문은 오늘날 기도하는 모든 신자에게 올바른 기도의 태도를 가르쳐 준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겸손한 태도, 은혜를 구하는 낮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청교도 신학을 연구하는 데 일생을 헌신한 조엘 비키는 기도의 가장 큰 동기, 그리고 유익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라고 말했다.

청교도 기도문을 읽으면 그들이 바로 그 동기를 가지고 그 유익을 풍성히 누렸던 이들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그들의 기도문에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하는 마음이 드러난다.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싶어하는 진심이 묻어 있다.

또 청교도들은 그들의 죄를 조금도 하나님 앞에 숨기려 하지 않는다. 축소하려 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대지도 않는다.

날날이 그들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다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고백,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의 고백,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들에서 발견되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로서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안다는 것이다.



▲제니 오거스타 브라운스콤(Jennie Augusta Brownscombe, 1850-1936)의 ‘청교도의 첫 추수감사절(Thanksgiving at Plymouth, 1914)’. ©nmwa.org

기도문은 단지 읽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 쓰는 것이다. 그래서 편집자 엘머도 “독자들은 부디 책의 기도문들을 읽으면서, 그 내용으로 소리내 함께 기도해 보기 바란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청교도 목회자였던 필립 도드리지의 기도에 대한 살아 있는 응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글들이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전달되며, 이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기를” 기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18쪽).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늘에 닿는 기도』를 읽고 소리내 기도하는 모든 독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를 갖추고 그분과 누리는 친밀한 교제 시간을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편 5:7



But I, by your great love,
Can come into your house;
in reverence I bow down
toward your holy temple.
PSALM 5:7

용수산 龍水山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투크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The Han-in Christian Elders In California

제18회 선교와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찬양제

초가을에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참가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찬양제 출연팀

☆남가주 장로 성가단	(지휘: 김 정 대)
☆미주 여성 코랄	(지휘: 오 성 애)
☆실비치 사랑교회	(지휘: 송 종 현)
☆미주코랄 Harmony of Divas	
☆남가주장로 성가단 중창단	
☆배재 코랄	(지휘: 김 원 재)
☆브니엘 찬양단	(지휘: 김 경 희)
☆아이노스 합창단	(지휘: 채 흥 석)
☆Soprano 김시연	
☆Tenor 최원현	

■일시 : 2026년 9월 20일(주일) 오후5시
■장소 :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담임목사)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문의 : T(310) 626-7904 T(909) 319-2158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회장 한경환

[서성록, 한 점의 그림] 부서진 아름다움: 그리스천 예술의 적정률 (3)

그리스도의 은혜 체현하는 ‘킨츠기(金継ぎ)’의 미학

‘부서진 미’를 위한 변론 3
킨츠기(Kintsugi)의 미학: 마코토 후지무라의 부서짐을 통한 새 창조

현대 기독교 미학에서 부서짐(Brokenness)과 고통의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한 인물로 작가이자 저술가인 마코토 후지무라(Makoto Fujimura)를 들 수 있다. 그는 저서 『예술과 신앙: 만들기의 신학(Art and Faith: A Theology of Making, Yale University Press, 2020)』에서 일본의 전통 공예 복원 기술인 ‘킨츠기(Kintsugi)’를 메타포 삼아, 이를 기독교의 구속 사역과 새 창조(New Creation)의 본질을 규명하며 이를 문화예술 사역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제시한다.

부서짐을 수용하는 회복의 미학

일본어 ‘킨츠기(金継ぎ)’는 깨진 도자기를 옷칠과 금을 포함한 다양한 재료로 붙이는 일본 전통 공예인데, 수리된 도자기는 원래의 모습을 뛰어넘는 아름다움을 지닌다. 킨츠기는 16세기 다도 문화와 센노 리큐의 미학을 배경으로 하며, 다인(茶人) 호소카와 유사이가 실수로 주군의 찻잔을 깨뜨린 시종을 구하기 위해 자비의 시를 읊고 그 파편들을 금박 옷칠로 이어 붙여 바친 일화에서 유래한다.

후지무라는 16세기 일본의 전통 공예 형식에 내재된 ‘희생적 자비’와 ‘평화 만들기(peacemaking)’ 정신에 주목하며, 이를 깨어짐을 안고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연결 짓는다.

일본어 ‘킨츠기’의 ‘킨(kin)’은 금(金)을, ‘츠기(継ぎ)’는 ‘붙인다’는 뜻을 지니지만, 동시에 ‘다음 세대로 연결한다’는 함의도 포함한다. 킨츠기의 가장 핵심적인 미학적 원리는 파손된 기물을 결합이 없었던 본래의 완벽한 상태로 되돌리거나 상처를 은폐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장인은 균열 자체를 시각적으로 더욱 세련되게 부각함으로써, 깨진 도자기를 원래의 실용적 목적을 넘어선 예술적 차원으로 이동시킨다. 이때 부서짐은 감추어야 할 오점이 아니라, 새로운 아름다움이 탄생하기 위한 필수 요인이 된다.

후지무라는 이러한 과정을 인류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신학적 유비로 제시한다. 에덴동산에서의 타락은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냈고, 인



▲킨츠기로 수리된 도자기. ©서성록 교수 제공

간의 삶은 죄의 파편들로 산산조각이 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잔해들을 폐기하지 않으신다. 킨츠기에서 균열을 채우는 금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서짐과 균열을 통해 흘러들어 빛을 발한다.

타락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겪는 상실과 고통의 파편들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잉여적 은혜(superfluous grace)와 결합해, 전혀 새로운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로 재구성된다(59쪽).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남겨진 못 자국이 수치가 아닌 구원의 영광스러운 증거가 된 것처럼, 킨츠기는 상처를 숨기지 않고 승화시키는 ‘회복의 미학’을 보여준다.

후지무라는 ‘킨츠기 정신’을 자신이 섬기는 리더며 교회의 ‘일과 신앙 센터(Center for Faith & Work, CFW)’ 사역에 적용했다. 팀 켈러의 목회철학을 바탕으로 설립된 CFW는 문화를 바꾸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우는 ‘문화 전쟁’의 방식 대신, 부서진 문화의 토양을 사랑과 성령의 열매로 비옥하게 일구는 ‘문화 돌봄(Culture Care)’의 패러다임을 제안했다.

뉴욕은 외견상 휘황찬란하지만, 그 이면에는 9.11 테러의 트라우마, 빈부 격차, 소외 등 수많은 ‘깨어짐’이 존재한다. 교회의 예술가들은 이러한 도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예술이라는 매개물을 통해 그 균열을 메우는 작업을 수행했다.

문화예술을 회피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소비하는 방식도 취하지 않는 대신, 시민들의 정서적 황폐함을 치유하고, 파편화된 공동체를 연결하며, 도시에 ‘살림’을 가져다 주는 공공선(Common

Good)의 통로로 인식했다.



▲후지무라 마코토, 황금 바다, 64x80cm, 종이에 광물 안료와 금, 2011.

상처를 통한 변모(메타모르포)와 새로운 새움(카이노스)

후지무라의 킨츠기 미학이 도달하는 궁극적 지점은 ‘새 창조(New Creation)’의 신비이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형체를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자가 수난의 상처를 지니고 계신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과거의 상태로 회귀하기 위한 보수 작업이 아니라, 세상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우주적 사건이었다. 부활하신 예수가 도마에게 보여주신 뚫린 손과 옆구리의 상처들은 실패의 흔적이지만, 하나님은 이를 지워버리지 않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증명하는 통로로 삼으셨다.

이는 “만들기가 부서짐을 존중할 때 부서진 형태들은 다가올 새로운 세계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부각

될 수 있다(59쪽)”는 성경의 약속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우리 고통의 흔적은 폐기될 대상이 아니라, 장차 올 새 예루살렘을 위한 ‘새 창조의 재료’가 된다.

이러한 신학적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후지무라는 바울이 선언한 ‘새로운 피조물(Kainos Ktisis)’의 어원적 의미를 거론한다. 현대 사회에서 ‘새롭다’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첨단 기술이나 최신 유행처럼 기존 제품이 개량된 것, 즉 헬라어 ‘네오스(Neos)’의 의미가 가깝다. 네오스는 화려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만 소비되고 소멸한다.

반면 바울이 말한 ‘카이노스(Kainos)’는 네오스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근본적이고 존재론적인 ‘

로 해석한다. 킨츠기의 은혜를 통한 새 창조 역시 ‘개량’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species)’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개념(47쪽)’이자 근본적 도약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은 타락한 세계의 파이프를 수리하는 ‘배관 작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단지 에덴으로 되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질서(새 하늘과 새 땅)를 선물하려고 오셨듯, 기독교 예술가 역시 과거의 향수나 완벽함에 대한 강박을 버리고 십자가의 부서짐을 통과하여 도래하는 카이노스의 양식으로 창조해야 한다.

예술가들은 문화의 부서진 균열을 수선하고 미래를 소환하는 전령으로서 상처를 껴안으며 성령의 열매를 ‘만드는(Making)’ 자로 부름 받았다.

요컨대 마코토 후지무라의 킨츠기 미학은 사물의 유용성을 회복하는 ‘수선’과 새로운 가치를 증대시키는 ‘생성’의 결합으로서, 고난을 외면하는 값싼 승리주의를 배격하고 인간의 비참함 한복판으로 뚫고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미학적으로 체현한다.

이는 신앙을 단순히 부서진 세상을 고치는 실용주의로 보지 않고 실패와 상처라는 파편들의 진정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상처의 틈새를 하늘의 황금빛 실재가 유입되는 거룩한 통로이자 영원한 영광의 흔적으로 승화시킨다.

“우리는 창조하는 존재이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운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지만, 풍요로운 삶, 즉 창의력과 상상력의 자유가 넘치는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셨다(Makoto Fujimura, ‘Light Through the Cracks’)”. 서성록 명예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후지무라 마코토, 뉴 비스타, 2022.



선한목자교회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차기 담임목사 청빙 공고

(1년간 Co-Pastor/동사목사로 사역 후 담임목사로 취임)



선한목자교회는 LA 동부지역인 Chino Hills, California에 위치한 51년 역사의 ECO (A Covenant Order of Evangelical Presbyterians, 복음언약장로교) 소속 교회입니다.



선한목자교회는 “예수의 제자로 성숙해지는 공동체”라는 비전을 품고 성장해 온 보수적 복음주의 공동체입니다.



담임목사님의 은퇴를 맞아, 하나님께서 선한목자교회에 맡기신 사명과 핵심가치를 계승하고,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차기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청빙되신 목회자는 1년간 동사목사(Co-Pastor)로 현 담임목사와 함께 사역하면서 교회의 목회 방향과 사역을 공유하고 동역하게 됩니다. 이후 교회의 목회와 사역을 이어받아 담임목사로 취임하여 선한목자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1. 자격 요건

- 이민교회 목회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복음주의적 신학적 정체성을 가진 장로교 목사
- 미국 내 정규 신학대학원 M.Div. 과정을 이수하신 분
- 미주 지역에서 5년 이상의 Full-time 목회 경력이 있는 분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 경력)
- 본 교회의 비전과 핵심가치에 동의하고 함께 이루어가실 분
- 목회적 역량과 건강한 영적 리더십을 갖추신 분
- 미국 체류 및 사역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 ECO(복음언약장로교) 소속 목사 또는 ECO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 한국어와 영어로 이중언어 목회 및 사역이 가능한 분



3. 제출 방법

- 제출 마감: 2026년 12월 31일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제출: resume@sunhanchurch.com (선한목자교회 청빙위원회 이메일)



2. 제출 서류

- 이력서(최근 본인 및 가족 사진 첨부)
- 목회자 자기소개서 및 목회철학
- 최근 설교 영상 2편 (YouTube 또는 Vimeo 링크)
- 신학대학원 학위증명서 및 목사 안수증 사본
- 목회자 추천서 2부 (추천인이 직접 청빙위원회 이메일로 제출)



4.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서류 심사 후 면접 및 추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청빙위원회



위원장 정의태 장로



www.sunhanchurch.com

목회자 내 집 마련 세미나 2026



"목회자는 정말 내 집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사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의 삶은 지혜롭게 준비하십시오.

주택 구입은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대출은 가능한지,
정부와 각 기관의 보조금은 받을 수 있는지.

인터넷에서는 찾기 어려운
목회자의 현실에 맞는 내 집 마련 전략을
한 자리에서 알려드립니다.

처음 준비하시는 분도, 이미 고민 중인 분도,
막연했던 내 집 마련의 꿈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꾸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시작하십시오.

일시: 2026년 9월 28일(월)
오전 10시 ~ 오후 1시

장소: 나성영락교회 (박은성 담임목사)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등록: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문의: 기독교일보 (213- 434-1170)



주최: 샬롬센터 (shalomcenter.net) / 특별후원: 기독교일보

강사: 이지락 장로 (샬롬센터 대표)
샬롬센터는 미국 남가주(LA 및 오렌지 카운티 등)에서
첫 주택을 구입하려는 한인 무주택자를 위해 연방정부 공인 주택교육,
1대1 구입 상담, 그리고 사·카운티·주정부의 다운페이 보조금(Grant)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내집 마련을 돕고 있습니다.